

# 10%의 기업이 46%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김선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공정책연구실장  
shkim@kosbi.re.kr



## 1. 고성장기업이란?

많은 기업들 중에서 비즈니스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다. 이 기업들은 전체 기업의 일정 비중을 유지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발견된다. 이처럼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업에 비해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고성장기업(high-growth firms)’ 이라고 한다.

한편 고성장기업 중에서 업력이 짧은 창업초기 기업을 ‘가젤(gazelles)’ 이라고 하는데, 보통 창업한 지 5년 미만의 신생 고성장기업을 말한다. ‘가젤’ 은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시속 70km로 달리는 매우 빠른 영양의 일종인데, 경제학자 Birch가 198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급속한 성장을 하는 작은 기업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이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충남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 우송대학교 교수, 현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공정책연구실장
- 김선화 외(2010), 성장지원프로그램(GSP)을 통한 중소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연구원
- 김선화(2010), 디자인-기술 융합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비즈니스모델 연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김선화(2010), 업종별 1인창조기업 사업환경분석을 통한 저변확대방안, 중소기업청

최근에는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대규모의 다국적기업이 된 창업기업을 ‘고릴라(gorilla)’라고 부르기도 한다<sup>1)</sup>. 인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고성장기업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닌 관계로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필요에 따라 나름대로 다양하게 정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OECD의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용 또는 매출액 증가율이 3년 연속 평균 20% 이상을 기록한 기업’이라는 기준을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란 보통 자생적으로 성장(organic growth 또는 internal growth)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한 경우(external growth)와는 구별한다. 그리고 고성장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성장을 거듭하는 기업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한번 고성장을 경험한 기업이 또 다시 고성장을 할 확률이 높으며, 경기 변동에 대한 탄성이 높고 이러한 기업들이 비록 그 수는 적지만 일정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많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

## 2. 왜 고성장기업에 주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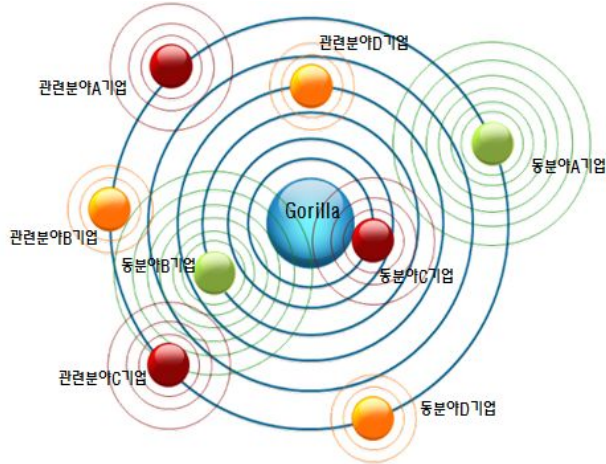
고성장기업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소수의 기업들이 그 수에 비해 매우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크게 기여한다는 많은 실증연구 결과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시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기업 성장 수준이 유사한 지역들 간에도 고성장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보다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2)</sup>

고성장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및 기업에 파급효과(riffle effect)가 큰 존재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고성장기업은 내부적으로는 혁신을 통해 기업 전반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존재이며, 산업 내, 산업 간 확산효과로 지역 내 많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수의 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큰 기여를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고성장기업은 주목의 대상이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고성장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고학력 실업자의 흡수와 기업생태계의 업그레이드 등 고성장기업의 역할과 기여가 크게 기대된다.

1) Headd and Kirchoff(2007)

2) NESTA(2009)



[그림 1] 고성장기업의 확산효과(riffle effect)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부에 대한 기여 등으로 고성장기업에 대한 관련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지역발전 증진에 기여하며, 경영자와 근로자에게는 만족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고성장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성장기업 지향적 정책에 관해 매우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이 높은 고용비중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역할로 주목되고 있으나, 실제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주로 영세기업 비중의 증가와 대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의 감소 때문이다. 이처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기업 규모별 분포를 감안한다면<sup>3)</sup>, 고성장기업의 다수 확보는 일자리 창출의 기반 구축과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3) 서정대·김선화(2010)

### 3. 고성장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채널은 창업과 기존 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고용 확대이다. 창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실제로 기여하려면 생존율이 높고, 창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높지 않고, 창업기업은 영세규모로 출발하여 그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sup>4)</sup>. 뿐만 아니라 소규모 창업이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고성장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그 수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의 분포와 평균 사업체 규모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왜냐하면 작은 규모의 기업에 분포가 편중되어 있거나 기업의 평균 규모가 작다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일자리 창출 파워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성장기업은 전체 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지만, 적은 비중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존재이다. 고성장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 분석 대상과 기간, 방법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증연구들이 고성장기업의 이러한 높은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증명하고 있다.

〈표 1〉 최근 외국의 고성장기업 실증연구 사례<sup>5)</sup>

구분	분석 결과	출처
영국	6%의 고성장기업이 2005~2008년 동안 신규 일자리 증가 2.4백만 중에서 54%에 해당하는 1.3백만개 담당	NESTA(2009)
	10% 미만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의 2/3를 담당	Experian(2010)
미국	상위 5%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의 2/3를 기여	Kauffman(2010)
	2000~2006년 동안 1% 미만의 고성장기업이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의 74%를 차지	Kunkle(2010)
	전체기업의 2~3%가 민간 부문의 대부분 신규 일자리를 창출	Acs et al. (2008)
캐나다	1993~2003년 동안 생존 기업이 신규로 창출한 일자리의 45%를 4%에 해당하는 고성장기업이 창출	Industry Canada (2008)

주: 대부분의 고성장기업 실증연구가 고성장의 정의, 분석대상 및 기간, 방법 등에서 차이

4) NESTA(2009), PRO INNO EUROPE(2007), Headd and Kirchhoff(2007)

5) 추가적인 외국의 연구 사례에 대해서는 서정대·김선화(2010) 참조

특히 고성장기업의 비중이 미국에 비해 낮은 유럽에서는, 그 이유가 관련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매우 적극적이다. 국가별 고성장기업을 분석하여 비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미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고성장기업 비율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6)</sup>.

이러한 분석과 관심을 반영하여, 많은 국가들이 고성장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대응 전략을 시행하거나 개발하고 있다<sup>7)</sup>. 특히 유럽의 경우, 개별 회원국은 물론 EU 전체 차원에서 고성장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고성장(잠재)기업은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 하에 관련 정책이 중소기업 정책 및 기술 정책과 차별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표 2〉 국가별 고성장기업 비중 비교

(단위: %)

구 분	고성장기업(High-growth Firms)		가젤(Gazelles)	
	2005	2006	2005	2006
미국	5.0	5.8	0.4	0.2
캐나다	4.1	4.2	-	0.7
뉴질랜드	4.1	3.7	0.1	-
이탈리아	2.0	8.0	0.3	0.2
스페인	2.9	2.8	0.5	-
룩셈부르크	2.5	2.5	0.6	0.3
핀란드	1.7	-	0.5	-
스웨덴	-	2.9	-	0.2
덴마크	1.7	-	0.3	-
노르웨이	-	2.5	-	0.2

주 : 1) 제조업 고용 증가 기준, 종사자 수 10명 이상 기업  
 2) 가젤은 고성장기업 중에서 설립 5년 미만의 신생기업  
 자료 : OECD(2010)에서 발췌

6) de Wit et al.(2008)  
 7) 서정대·김선화(2010)

## 4. 한국의 고성장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최근 중소기업연구원(2011.2)에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4,68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고성장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매출액 증가를 기준으로 한 고성장기업 분석(2010.3)에 이어 고용 증가를 기준으로 한 고성장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16,000여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중에서 분석이 가능하고 상시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성장기업의 정의를 ‘05~08년 기간 동안 ‘고용 증가율 100% 이상을 달성한 사업체’로 하였으며<sup>8)</sup>, 이 기업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를 분석하였으며, 고성장기업의 규모별 및 업력별 분포를 파악하고,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성장기업은 전체의 10.0%로서, 이러한 고성장기업이 신규로 창출한 일자리는 전체 증가의 46.3%로 적은 수에 비해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4,683개 업체 중에서 약 10.0%인 467개 업체가 고성장기업에 해당되었으며, 고성장기업 467개가 동기간 동안 29,8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체 신규 일자리의 46.3%를 제공한 것이다.

〈표 3〉 고성장기업의 비중과 일자리 창출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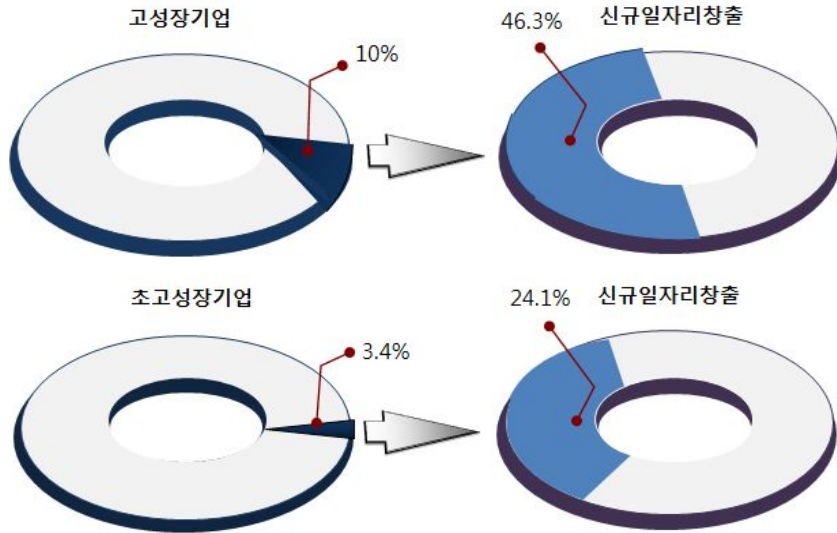
구분	고용감소기업	고용유지기업	성장기업	고성장기업	합계
사업체수 (비중)	1,861 (39.8)	316 (6.7)	2,039 (43.5)	467 (10.0)	4,683 (100.0)
일자리 증감수 (비중)	▲ 41,135	-	34,566 (53.7)	29,800 (46.3)	23,231

주: 1) 일자리 증감 수 비중은 신규 일자리 증가분 중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기업데이터 가공

한편, ‘고용증가율 200% 이상’인 기업의 경우를 초고성장기업으로 정의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살펴 본 결과, 초고성장기업은 3.4%의 극히 적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규 일자리 증가의 약 1/4를 차지하였다. 또한 초고성장기업이 제공한 사업체당 평균 신규 일자리 증가 수는 99명(연평균 33명)으로 보통 성장기업의 약 6배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8) OECD 고성장기업의 정의(3년 연속 매년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 20% 이상)와 차이



주 : 1) 기술기반 중소기업 4,683개 대상으로 분석(중소기업연구원, 2011.3)  
 2) 고성장기업은 '05 ~ '08년 기간 동안 고용증가를 100% 이상 달성한 기업,  
 초고성장기업은 200% 이상 달성한 기업

[그림 2] (초)고성장기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

<표 4> 성장 수준별 비교

(단위: 개)

구분	사업체수 (비중, %)	신규 일자리 창출 (비중)	'05~'08년 업체당 일자리 증가 수
고성장기업	467 (10.0%)	29,800 (46.3%)	64 (연평균 21)
초고성장기업	157 (3.4%)	15,495 (24.1%)	99 (연평균 33)

고성장기업이 모든 규모에 걸쳐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결과를 보였다. 전체 업체 중에서 20인 미만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7.1%임에 비해, 20인 미만의 업체의 고성장기업 비중이 43.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초고성장기업 중에서 20인 미만의 비중(51.0%)은 고성장기업의 경우보다 더욱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성장기업의 분포는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고성장기업에 의한 신규 일자리 창출 임팩트를 적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한국보다 높고 고성장기업의 규모 분포 또한 전체 기업의 규모 분포와 유사하다. 따라서 50

인 이상 규모의 고성장기업이 직면하는 특별한 어려움의 해결과 잠재적 고성장기업의 발굴에 특히 주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5〉 고성장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

(단위: 개사, %)

구분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300인이상	합계
고성장기업	204 (43.7)	189 (40.5)	51 (10.9)	22 (4.7)	1 (0.2)	0 (0.0)	467 (100.0)
초고성장기업	80 (51.0)	60 (38.2)	11 (7.0)	6 (3.8)	0 (0.0)	0 (0.0)	157 (100.0)
전체	1,268 (27.1)	1,930 (41.2)	850 (18.1)	443 (9.5)	144 (3.1)	48 (1.0)	4,683 (100.0)

주: ( ) 내 숫자는 각 경우가 각각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임.

한편 전국 16개 시·도별로 고성장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에 가장 많은 (초)고성장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그 다음이 서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 소재한 고성장기업은 91개로 전체 고성장기업의 19.5%, 초고성장기업은 37개로 전체 초고성장기업의 23.6%를 각각 점하고 있다.

〈표 6〉 16개 시·도별 고성장기업 분포

(단위: 개사, %)

구분	경기	서울	경상	충청	부산	대구	인천	전라	대전	광주	울산	강원	합계
고성장기업	140	91	56	36	36	23	20	19	19	12	11	4	467
초고성장기업	30	19.5	12	7.7	7.7	4.9	4.3	4.1	4.1	2.6	2.4	0.9	100

고성장기업이 경기도에 비해 서울에서 생각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은 분석대상이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서울이 제조업 특화지역이 아니고, 고성장기업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많다는 기존의 외국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 지역에는 서비스업 고성장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 5. 시사점과 향후 과제

본 고에서는 10%에 불과한 고성장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성장기업의 육성과 잠재 고성장기업의 발굴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한 결과라고 하겠다. 특히 조직의 확장에 따른 양질의 인력 문제가 고성장기업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점은 고학력 실업 증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리고 고성장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기존의 외국 연구사례와 유사하지만, 한국의 경우 특히 작은 규모에 집중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고성장기업의 비중에 비해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성장의 정의와 분석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성장기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와 정부의 지속적 관심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성장기업의 특성, 고성장의 배경과 결정요인, 혁신과 생산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성장기업이 직면하는 장벽과 해결방안, 잠재적 고성장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고성장기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고성장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의 목표는 고성장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과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성장기업을 배출하기 위해서 정책담당자들이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전략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성장기업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보다 많은 신규기업의 발굴, 둘째로는 고성장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 장벽의 파악과 제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장기업의 특성과 차별성에 근거한 맞춤형 시책의 개발 등이다.

16개 시·도의 제조업 특화업종 및 부가가치생산성 상위업종을 비교분석한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2010.12)에 의하면, 서울시의 특화업종과 부가가치생산성 상위업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화업종으로는 ①섬유제품 ②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③가죽·가방·신발 ④인쇄·기록매체복제 ⑤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⑥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⑦기타제품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부가가치생산성 우

위업종은 ①섬유제품 ②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③인쇄·기록매체복제 ④비금속광물제품 ⑤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⑥기타제품 등이다. 그리고 특화업종인 동시에 부가가치생산성 상위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은 ①섬유제품 ②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③인쇄·기록매체복제 ④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⑤기타제품 등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위의 결과는 열거한 몇 개의 업종에서 서울 지역의 잠재적인 고성장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굴될 것으로 본다. 한편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고성장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서비스산업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더 많은 고성장기업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분석대상을 확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고성장기업과 관련된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내용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SDI**

## 참고문헌

- 김선화· 서정대 (2011), “고성장기업의 일자리 창출”,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제9호, 중소기업연구원, 2011.2.
- 서정대· 김선화 (2010), “성장기업 지원프로그램(GSP)를 통한 중소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제3호, 중소기업연구원, 2010.2.
- 서정대 (2010), “특화업종 및 부가가치생산성 상위업종의 지역비교”,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제8호, 중소기업연구원, 2010.12.
- Acs, Zoltan J. and Parsons and S. Tracy (2008), "High-Impact Firms: Gazelles Revisited", SBA Report, SBA Office of Advocacy.
- de Wit, G. and N.G.L. Timmermans (2008), "High-Growth SMEs: Evidence from the Netherlands", EIM, Scientific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and SMEs.
- Experian (2010), "Tomorrow's Champions: finding the small business engines for economic growth", The Insight Report, December 2010.
- Headd, Brian and Bruce Kirchoff (2007), "Small Business Growth: Searching for Stylized Facts", Office of Advocacy,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Kunkle, Gary (2010), "Sustained Growth and Recession Resistance", Dept. of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eam PA Foundation.
- NESTA (2009), "The vital 6 per cent: High-growth innovative business generate prosperity and Jobs", October 2009, NESTA.
- OECD (2010),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 2009", OECD 2010.
- PRO INNO EUROPE (2007), "Exploratory Team Report on High-Growth Innovative SMEs", PRO INNO Learning Platform.